

던 고개라 전한다.

봉명리에는 황서배라는 지역이 있는데, 계명산의 황새바위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망천 뒤에 있는 산은 살포재, 사포티, 효산, 회산 등 이름이 많은 산이다. 노을이 뜰 때와 노을이 질 때 절경을 이루는 산이라 조선시대 한산고을에 머무는 선비들이 바다와 육지를 서로 표현할 때 흔히 나오는 절경의 산이다.

망천 남쪽에 외따로 있는 산을 독피라 하며, 탄피, 독산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돈과 재산 모으기에만 급급하던 촌부가 마을에서 인심은 잃었으나 돈이 많아서 돈에 허우적대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가 죽은 후 시체를 매장하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승낙해 주지 않고 일을 돌봐주지 않아서 이 산에 묻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계명산에는 쪼개진 것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하며, 벼락 맞아서 쪼개졌다고 전해진다.

신기마을에는 효자 이임 경주 이씨 정려비각이 있는데, 효자 이임은 부모가 함께 병환이 나서 30년을 간호했는데, 조금도 게으름이 없이 약과 음식으로 정성을 다 하고 돌아가셔서도 시묘살이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 자부인 처 이씨는 조용하고 어질고 정숙하여 여자의 덕을 갖추는데 손색이 없더니 남편이 죽자 3년 상을 마치고 약을 먹고 남편 뒤를 따랐다 한다.

봉명리에는 화양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봉명리 전경

제5장 기산면(麒山面)

기산면은 주 산인 기린봉이 위치하고 봉선지 수로가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구릉지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자체가 분수령이 되어 동쪽 한산면과 남쪽 화양면, 서쪽 마서면과 서천

읍, 북쪽으로 시초면과 마산면 등 모두 6개 읍면과 인접해 있어 군에서 면계가 가장 복잡한 면이다. 그러나 타군이 아닌 순수한 서천군내의 읍면으로 인접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백제시대 마산현 소속이었으며, 신라시대에는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이었고, 1413년(태종 13) 고려시대 는 임천의 한산현에 소속됐었다가 조선 말 한산군 지역이었다. 한산읍의 서쪽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서산면이라 하여 이남 외 8개 동리를 관할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하면의 황사 외 14개 동리와 남상면의 금북, 장상의 2개리와 서하면의 광현, 쌍암의 2개리, 활동, 표동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이곳에 위치한 기린산의 이름을 따서 기산면이라 했다.

당시에는 이사, 월기, 막동, 가공, 화산, 산정, 영모, 황사, 신산, 원길, 두북, 두남, 내동, 광암 등 14개리로 개편되어 관할하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이사를 마산면에 편입시키고 현재 13개리를 관할하고 있다.

면 소재지인 화산리는 면사무소, 우체국, 동서천 농협, 기산초등학교, 보건지소, 치안센터 등의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지형을 살펴보면 남쪽이 화양산으로 화양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북쪽은 건지산계 구릉선이 한산면 및 마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로인해 서북 사면이 평야지대이며, 길산천 유역으로 시초면, 서천읍, 화양면, 마서면 평야와 연결된다.

논은 주로 길산천 유역이 주가 되어 그 지류인 월기천과 내동천변 등에 분포되어 있다. 내동, 두북, 두남, 원길리 등 4개리는 간척촌이고, 북쪽의 산정, 막동, 월기 등 3개리는 길산천 주변의 취락이다. 남쪽 내동천 유역의 신산, 화산, 황사 등 3개리와 동쪽 완포천 상류인 영모, 가공, 광암 등 3개리를 합한 6개리는 해발 20~30m상에 분포한 곡간취락이다.

구릉지임에도 밭이 적고 논이 많은 기산면은 서천~한산 사이의 군도 23호선이 동서로 관통하고 있으며, 마을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어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이다.

황사리에 위치한 승정산은 한산팔경 중의 하나로 지금도 정상에 오르면 기암괴석이 소나무와 어울려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산 중턱에는 팔각정을 지어 이곳을 오르는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제일 동쪽에 위치한 광암리가 동경 126°47', 서쪽은 원길리로 동경 126°44'이며, 남쪽은 내동리가 북위 36°4', 북쪽은 월기리가 북위 36°6'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충절의 고장으로 많은 충효문과 문헌서원, 화산서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하복 전통가옥, 문헌서원, 목은 이색 영정, 이색 묘 일원, 이색신도비, 가정 목은 선생 문집관 등은 민속자료, 문화재, 보물 등으로 각각 지정되어 보존 되고 있다.

총 20.77km²의 면적(전 1.74, 답 8.84, 기타 10.19)에 2006년 12월 31일 현재 9백79호에 2천2백18명이 모여 살고 있다.

- 화산리(華山里)

화산리는 화산과 수출로 나누어지는데, 면소재지가 위치한 마을이며, 기산면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백제시대 마산현에 속했었고, 신라시대에는 가림군에 속한 마산현 소속이었으며, 고려시대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 한산군이었으며 조선 말에는 한산군 서하면(西下面)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역촌과 서상면(西上面)의 수출리 일부를 합하여 마을 앞에 있는 화양산의 이름을 따서 화산리라 하여 서천군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소재지를 주막개, 역말 등으로 부르는데, 주막개는 옛날 마을에 주막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역말은 조선시대 신곡역(新谷驛)이 있었던 마을이라 신곡, 역촌, 역말 등으로 불리워진 데 따른 것이다.

큰 뜰은 소재지 북쪽으로 형성된 큰 마을이며, 새로 생겼다 해서 새태라 지칭하는 곳이 있고, 옛날 서당이 있어 서생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해서 서당골이라 하는 지역이 있다.

동북쪽으로 구석에 있다 해서 구석골이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이곳에 서천식물예술클럽이 조성되어 연꽃과 각종 식물, 분재 전시장, 옹기 전시장 등의 볼거리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역말에서 내동리로 가는 모퉁이를 아홉모퉁이라고 부르는데, 모퉁이가 크고 작은 것 합쳐 아홉개가 있는데서 연유되었으며, 북쪽 산속으로 들어간 마을을 수출 또는 문학골, 문학동이라고 부른다. 이는 산골짜기에서 사철 물이 나온다 해서 무늬골, 수출리라는 명칭이 붙었다 한다. 지금도 마을 위쪽에 있는 산 밑에 웅달샘이 그대로 있다.

문학골 북쪽 가공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남재라고 하는데, 옛날에 서당의 서생들이 많이 넘어다니던 고개라 한다.

문학골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갠절이라고 하는데, 갠절이라는 절이 있었다 하며, 지금도 주변에 투박한 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한다. 폐사된 유래는 절에 빈대가 많아서 망했다고 하며, 폐사된 후 그곳에 우리 고장 최초의 개신교인 화산교회가 자리 잡았다. 또한 갠절사지 서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새절매라는 절터가 있는데, 표고 120m의 능선이 남향으로 뻗어 내린 곳에 동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지 내에 대나무가 우거져 있고 민묘가 다수 있다. 사지라고 할 수 있는 유적 유물은 발견할 수 없고 다만 고려 때 세워진 절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빈대가 많아 불태웠다는 말이 전해진다.

마을 앞쪽으로 화양산 밑에 행제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으며, 면사무소 옆 신산리 입구에 효자 성학순 비각이 자리 잡고 있다. 성학순 정려 비각은 1888년도 건립되었으며, 이 분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효성으로 부모 섬김을 겨울에 잉어와 뱀과 죽순을 구해드리듯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마을 뒤쪽 산에 권성의 묘가 있는데, 그는 조선 숙종 때의 문신으로 호는 제월제, 시호는 정간(貞簡)이며, 본관은 안동으로 1687년(숙종 13)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신임사화(辛壬士禍) 이후 은퇴하고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고 전원생활로 여생을 보냈다.

마을에 있는 화산서원은 화양면 구동리에 향현사라는 사우가 시초로 대원군 때 훼손되어 영정만을 모시다가 1968년 현 위치에 영당을 걸립하고 매년 춘추로 제향을 올린다. 당초 권변, 권성 선생 등 2위가 배향되었으나 1991년 기존 화산사 자리에 건평 32평(본관 28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92년 서원으로 승격되어 새로 5위가 추가되었다. 현재 권벽, 조수윤, 권필, 홍미, 권양, 권변, 권성 선생 등이 배향되어 있다.

구석골에 자리 잡고 있는 전 화산교회는 1902년 3월 1일 서천군에서 최초이자 충남에서도 처음

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노회에서 창립한 교회로 역사적 가치가 높으나 1988년 현재의 기산교회와 합병되어 현재는 그 건물이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산리는 2004년도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서천이색체험마을’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도시인들이 농촌 체험을 위해 많이 방문하는 마을이다. 이는 이 마을 출신 김재완 전 교장이 사재를 털어 본인소유의 농토에 서천식물예술원을 구성하고 무료로 개방함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김재완씨는 농촌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대신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을에 1933년에 개교한 기산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학교에는 초등학교 전 교재에 나오는 우리의 옛 물건을 전시한 우리문화학습박물관이 있어 타 지역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견학을 오고 있다.



화산리 이색체험 마을



서천식물 예술원

-신산리(辛山里)

신산리는 내신산과 외신산으로 구분되며, 예부터 마을 부근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가 하면, 들은 기름지고 산이 수려하여 살기 좋은 곳에 마을이 생겼다 해서 신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고,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다. 1413년 한산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한산군 서하면의 지역으로 신산이라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산리, 내북리, 각 일부를 합하여 신산리라 해서 서천군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외신산은 신산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천척매 라는 곳이 있는데, 백제 때 이곳에 포구가 있어 배를 천 척 이상 매어 놓는 큰 포구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통박골이라 부르는 지역은 마을 지형이 소가 통에 준 먹이를 먹는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신산 위쪽에 있는 마을을 운수골이라 하는데, 이 곳에서는 더운 물이 나오는 곳이 있었다 하며, 남쪽에 있는 지역을 살미라 하는데, 살미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은 안살미, 밖에 자리 잡은 마을을 밖살미라 한다.

대숲골 서쪽에 있는 곳을 방죽 안에 있다 해서 방죽안이라고 부르고, 새터 동쪽 모퉁이를 만석모랭이라고 하는데, 이는 만석을 수확하는 부자가 이 근처에 살아서 이 모퉁이로 곡식 만석을 낚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방죽안 북쪽으로 막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막골재 라고 하며, 옛날 군사들이 많이 넘나들던 고개라 한다. 지금은 도예체험장 아이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내신산 동쪽에 있는 대숲골이라는 곳은 마을 주변에 대숲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에는 충남도 중요민속자료 제119호(1894년 12월 24일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故이하복 전통 가옥이 있는데,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통 농가 형태를 간직한 채 보존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옥이라 한다. 멀리 장군봉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화양산을 바라보며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 가옥은 포근한 느낌을 주는 초가로 되어 있다.

동강중학교를 세운 이하복 선생과 이은복 선생, 이기원 박사(전 한국정신문화원 부원장), 이대원(전 삼성그룹 부회장, 대한육상연맹 회장), 이인원 교수 등의 형제가 이 집에서 출생했다.

마을에는 효자 윤자학 정려비각과 효열부 숙부인 경주 이씨 비가 있으며, 지금은 없어졌으나 마을 앞쪽에 대장간이 있어 주변 마을의 농기구를 다루었었다.



신산리 전경



이하북 가옥

외신산은 내신산의 바깥쪽에 있다 하여 외신산이라 하고 새터라고도 한다. 이 새터는 청상으로 홀로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머니의 병환에 열지를 하여 효자로 널리 소문이 났고, 매년 외를 심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서당을 개설하고 100여명의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쳐 세 가지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하여 삼별재(三別齋)란 호를 받은 나문호(羅文鎬)가 출생한 마을이다.

-내동리(內東里)

망골산 아래 대천들을 가로지르는 화산천의 물줄기가 풍요한 들을 적시고 있는 내동리는 여우매(여우동)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논농사를 으뜸으로 치던 시절의 부자마을이었다.

내동리는 백제시대 마산현 이었으며, 통일신라시대까지 마산현이었다가 고려 때 한산현에 속했다. 조선 태종 13년 한산군에 속했고, 조선 말 한산군 서하면의 지역으로 두문동 안쪽에 있다 해서 안두문 또는 내두문이라 했는데, 이를 줄여 내동이라 했고, 1914년 남상면의 금북리, 장상의 각 일부를 합쳐 내동리라 해서 서천군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금당 하리 쪽에 있는 신내동 일부는 1996년도 화양면으로 편입되었다.

마을에 잡재밭이라는 곳이 있는데, 조선시대 지금의 내동리 사람들이 화양면에서 이곳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몰아냈는데, 그 후 동학란이 터지자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곳 지금의 내동리 밭 근처에 불을 질러 재밭을 만들었다 하며, 그로 연유하여 잡재밭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한다.

망골산은 화양산에 인접한 산으로 옛날부터 이 근처에 괴질이 퍼져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이 산에다 매장 하였다 한다. 얼마 전까지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었다 하는데, 사람의 시체를 허술하게 다루어 인골이 노출되어 있기도 했다 한다.

대천들은 내동리에 펼쳐진 들로 백제 때부터 고려 때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와 큰 선착장이 있었다 하며, 산에 사태가 날 때마다 바다가 메워지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들이 생겼다 한다. 따라서 옛날에 바다 다음으로 큰 내가 흘렀다 하여 대천들이라 했다 한다.

여우매 또는 여우동은 지형이 여우를 닮아서 그렇게 불렀다고도 하고, 여우가 많이 사는 들에 마을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전설에 얽힌 동덕랑 권공 묘갈 등 백비 두 개가 있는데, 그 전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옛날 중국에 비석을 주문하여 마을 앞 선착장 까지 실어왔으나 비석에 피가 묻어있어 다시 만들어다 세웠는데, 꿩이 비석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마주 싸우다가 무수히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지금은 돌보는 이 없이 잡초에 묻혀 있으며, 비석도 비스듬히 기울어 있다. 이는 후손들이 비석을 돌보기 위해 이곳을 다녀가면 반드시 후환이 뒤따랐기 때문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는 교하 노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두남리(斗南里)

두남리는 내남과 외남으로 나누어지며, 내남은 고란곶, 셋터, 오매로 구성되어 있고, 외남은 소로지와 뒷넘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은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다가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이었고, 고려 초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 태종 13년 한산현 이었다가 조선 말 한산군 서하면의 지역으로 사동의 남쪽에 있다 해서 두남이라 하여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고란곶은 소로지 남쪽에 있는 마을로 고란동, 고란열이라고도 하는데, 주류성에서 밀려난 백제의 유민들이 자리 잡은 마을이라 고란동(古蘭洞)이라고도 했으며, 옛날 성이 있는 마을로서 거북형이라 오산이라고 불렀다 한다. 또한 까마귀가 많은 곳이라 오산(烏山) 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고도 전한다.

고란동 서북쪽으로 두남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 있는데, 옛날 소나무가 많았다 해서 소로지라고 불렀다 하며, 밖두문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두문이 바깥쪽에 있는 마을을 밖두문이라 하는데, 백제 때 귀양살이를 하던 백제 유민들이 사는 그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외두문, 또는 외동리라고도 한다.

마을에 효열부 신화용 정려비각이 있는데, 이는 1958년에 건립되었다. 효열 신화용 여사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며 규범을 몸에 익혔다. 시집간 후에 시부모가 계속하여 돌아가시자 사당에 영정 아홉만이 있어 어린 나이에도 조석으로 상식을 올려 소홀함이 없게 했다. 남편이 기이한 병에 걸려 죽자 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따라 죽지 못하고 종질을 양자로 삼아 노씨 집안을 일으켰다 한다.



두남리 전경

-두북리(斗北里)



두북리 마을 전경

두북리에는 동강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두북과 계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 때는 마산현에 속했었고 신라시대에도 마산현으로 가림군의 영현에 속했으며, 고려 초에는 한산현이었다. 조선 태종 13년 한산군에 속했다가 조선 말 한산군 서하면의 지역으로 두문동 북쪽에 있다 해서 두북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외북리와 길상리, 내북리 각 일부를 합하여 두북리라 해서 서천군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연정말 북쪽으로 있는 지역을 계촌이라고 한다. 마을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며, 두문이는 두북리, 두남리, 내동리에 걸쳐있는 마을로 두문이, 두문리, 두여동, 두문동이라 하는 마을인데, 백제 때는 백제 유민들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사람들이 바깥출입 할 때 제약을 받았던 마을이라 하며, 옛날에는 포구였다고 전해진다.

연정말 동쪽으로 있는 마을을 구숫골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마을에서 소를 많이 먹였으며, 소가 잘 되는 마을로 그로 연유해서 구숫골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새뜸 서쪽에 있는 논을 권답이라 부르는데, 이곳에 전답이 처음 생겼을 때 권씨가 처음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전해진다.

새뜸은 연정말 서쪽으로 새로 된 마을이며, 두북교 동쪽으로 고개가 있는데 이곳에 성황당이 있었다 해서 서낭당이라고 부른다. 연정동은 댕머리 남쪽으로 있는 마을이며, 두북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옛날에 연정(蓮亭)이 있었다 해서 연정이라고도 부른다.

전장매는 새뜸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옛날 시장이 섰던 마을이다. 또한 고려시대 왜구가 이곳까지 쳐들어와서 우리 군사와 크게 싸웠던 자리라 한다.

마을에 있는 동강중학교는 일제기 근대 교육을 받고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얻고 귀국한 이하복 씨가 1949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원길리(院吉里)

원길리는 원길과 원동으로 구분되고, 원길리는 안질매, 문경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길산쪽에 위치한 마을이 원길이며, 동쪽으로 있는 마을이 원동이다.

질매다리로 유명한 질매가 바로 원길리로, 조선시대 신곡역에 딸린 길산원(吉山院) 이었던 마을

이라 원길리라 했다고 전해지며, 마을에 진산이 자리 잡고 있다.

백제 때 마산현 소속이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 이었다가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었다. 그 후 조선 말 한산군 서하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동리, 길산리, 신산리, 외산리 각 일부를 합쳐 원길리라 하고 서천군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원길 가운데 있는 지역을 중뜸이라 하고, 안쪽 마을을 안질매라 하는데 질매 안쪽으로 마을이 있다 해서 그렇게 부른다. 질매 동북쪽 마을을 원골이라 하며, 조선시대 길산원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길산원에 딸린 논은 원논이라 한다.

참새골이 있는 고개를 서낭당이라 하며, 참새골 동쪽으로 있는 지역을 비아목이라 하는데, 마을에 새떼가 많이 날아다니는 마을이라 그렇게 불렀다 하며, 또한 마을 지형이 뱀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뱀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비아골이 되었다가 비아목이라 불리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소골이라는 곳은 우곡이라고도 하는 지역으로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서 그렇게 지칭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찬샘골은 안질매 동쪽으로 있는 마을이며, 마을에 찬샘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찬샘은 옛날부터 피부병, 속병 등에 특효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또한 이 물로 목욕을 하기 위해 몰려왔다고 한다. 특히 한산 고을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약수터로 알려져 있으며, 역졸들이 이 물을 길어다 한산에 팔기도 했었다고 한다.

질매다리가 놓인 길산천은 서천군 최대의 금강 지류로 길이 23km이며, 문산면 금복리에서 발원하여 남류하고 화양면 망월리에서 강으로 주입되는데 다시 5개의 소류지를 거느리고 있다.

질매다리는 서천군과 한산군을 경계로 하는 기준이 되고 있었으며, 한산, 서천을 잇는 중요한 다리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질매다리는 홍예다리였는데, 다리에 사용했던 돌이 지금도 다리 밑에 파묻혀 있다 한다. 이 홍예다리를 설치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의 공적비가 전 길산초등학교 교정에 자리 잡고 있다. 비석의 건립 연대는 동국여지승람 한산 교량조에 길산 포석교가 군 서쪽 22리에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1530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질매다리의 어원은 원길리 뒷산이 질메이기 때문이며, 이 마을이 지금도 길산으로 불리고 있다.

원동리에는 지난 1993년도에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그 아내가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죽을 썬어 남편에게 먹이고 살려낸 조선시대 판 열녀 이순예 씨가 살고 있다.



원길리 마을 전경

-산정리(山亭里)



산정리 외산정 전경

산정리는 산너머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외산정과 내산정으로 구분된다.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으며, 신라시대 마산현이 가림군에 소속됨에 따라 그에 속했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산군에 속했다가 조선 말 한산군 서하면의 지역으로 마을 중간에 산이 있다 해서 산넘말이라 했다 한다. 산말너머 또는 정자나무가 있다 해서 산정말, 산정이라 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내산리, 외산리 일부를 합하여 산정리라 해서 서천군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산정마을 안쪽에 있는 지역을 안산넘말이라 했으며, 내산, 내산리, 내산정이라 하고 또한 바깥쪽 마을을 밖산넘말, 바깥사너머말이라 했고 외산정이라고도 한다.

동쪽에서 신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신산재라 하고, 외산리 서쪽으로 있는 논을 쇠뿔배미라 하는데, 논 모양이 쇠뿔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내산리에서 외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상황당이 있었다 해서 서낭당이라 하며, 외산리 북쪽으로 있는 뒷산을 당산이라고 한다. 이 산 기슭에는 제당이 있어 마을에 흉한일이 있을 때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산제를 지냈다 한다.

외산 서쪽으로 방죽배미가 있는데 옛날 이 곳에 방죽이 있었다 하며, 서남쪽에 있는 구레논은 논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기름진 논이라서 그렇게 불려졌다고 한다. 이 지역은 갑오년에 난리가 났을 때 사람을 잡아다가 오랏줄에 묶어서 총살을 했던 곳이라 한다.



면나무로 지정된 느티나무

내산에는 면나무로 지정 관리 되고 있는 느티나무 세 그루와 팽나무 12그루가 있는데, 수령이 3백

년이 되었다 하며, 이 나무의 아래부터 잎이 피면 흥년이 들고, 위에서부터 잎이 피면 풍년이 든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고사목을 화목으로 사용하게 되면 화를 입는다는 얘기가 있으며, 옛날에는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고 시끄러울 때 이 나무들이 울음소리를 냈다고 한다. 일제 때는 일본 사람들이 이 나무를 베어내려 했는데 톱을 대니 피가 흘러서 나무를 베지 못했다고도 한다.

내산정리 뒤쪽으로 옥녀봉과 장군봉이 연이어 있는데, 옥녀봉은 마을 처녀가 옛날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곳의 장군을 지극히 사모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애달픈 사연이 있어 옥녀봉이라고 부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의 명당이 있다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도 전한다. 또한 산 모양이 단정하고 옥녀가 거문고를 타는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장군봉은 이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산으로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추정되는데, 정상에 올라보면 토석 혼축으로 쌓은 산성이며, 성 둘레가 200여m 정도의 작은 테피식 산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만 확인할 수 있고, 남벽은 석축 흔적이 있으나 붕괴되었고 주변에서 토기편이 발견된다.

이밖에도 장군봉 맞은편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북을 울리던 곳이라고 해서 북청매, 그 곁에는 기를 쫓았었다는 기절매 등의 지명이 남아 있으며, 회말재라는 곳에는 장군이 말을 타고 가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전에는 옥녀봉에 있는 용천굴의 물과 지하수를 마을의 상수원으로 사용했으나 지난 1993년도 대형 관정을 회관 앞에 마련하여 농업용수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당산제를 지내고 있는데, 옛날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술밥을 찌서 말리는 것을 새가 먹으면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어느 해인가 샘제를 지내고 당제를 지내기 전 풍물을 친 후 징을 놓았는데 그 징이 없어져 한참을 찾아 헤매다 보니 도저히 옮겨질 수 없는 우물가에 있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날이 쌀 무렵 청용뿔에 가서 제를 지내는데 달아놓은 명태를 먹으면 재수가 대통한다 하여 모두들 그 명태를 먹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초대 농림부 장관이며 재헌 국회의원이던 이훈구 박사가 이 마을 출신이다.

-막동리(幕洞里)



막동리 전경

막동리는 기산면 화산리에서 신산리를 지나 막동 고개를 넘어 마산면 이사리로 통하는 농로 양쪽

에 조성된 마을이다.

백제 때 마산현 소속이었으며 고려시대에는 한산현에 속했고, 조선 태종 13년 한산군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막동리라 해서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막동리라는 지명은 옛날 장군봉에 군사들이 진을 쳤을 때 이곳에 막을 치고 파수를 보았다 해서 막골 또는 막동이라 했다고 전한다.

장군봉은 백제시대의 산성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내산정과의 사이에 흰말재라는 고개가 있고 구수바탕이라는 지역도 있어 그 무렵의 군사주둔지였던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옥녀봉(내산정 편에서 소개)에는 옥녀탄금형이라는 명당이 있고 백조개, 당살매, 뒤줄매 등의 지명이 있는데, 백조개는 강이 흐를 당시 흰 조개가 많이 나온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이 마을이 생겨서부터 백조가 많이 날아와서 길한 마을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당살매, 뒤줄매는 배를 매어 났던 곳이라 해서 그런 지명이 붙었다는 얘기와, 당산이 있었다 해서 그렇게 지칭하게 됐다는 설이 전해진다. 실제로 옛날에는 막동리 당제를 지냈었다.

또한 용배미 라고 부르는 논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 못이 있었고, 그 못에 용이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북청매 동쪽으로 오리자리 라는 논이 있는데, 논에 물이 늘 있어 오리가 잘 논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 하며, 논이 모양이 오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광해자리라는 논은 기름져서 벼가 잘 되어 항상 광 가득 차지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밖에도 강태공 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옛날에는 한쪽으로 물이 고이는 못이 있었고 그 옆으로 있는 샘을 강태공샘이라고 했다 하며, 이곳 물을 마시면 세상사에 놀라지 않고 신선객이 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장군봉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왔다고 한다.

막동리는 20명 가까운 교육자를 배출한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마을에 효자 나동윤의 정려문이 있다. 효자 나동윤은 한국의 왕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 섬김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 분이다. 부모를 봉양함에 입과 몸만 위하는 것은 부모에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뜻까지 받들어 봉양해야 함을 신조로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켰다 한다.



막동리 나동윤 정려

- 월기리(月岐里)



월기리 전경

월기리는 월천과 삼기리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시대는 마산현 소속이었으며, 신라시대 가림군의 마산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임천의 마산현 소속이었고 조선시대 한산현에 속했다가 조선 말 서상면의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월천리, 삼기리, 양지리 각 일부를 합하여 월기리라 하여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월기의 으뜸 마을을 달구내 라고 하며, 이곳은 현재의 진료소에서 가공 쪽에 있는 곳으로 옛날에 월기 마을이 이곳에서부터 차츰 서쪽으로 사람이 옮겨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용샘 너머에 있는 마을을 샘너머 라고 하는데, 조선 말 한산현 건지산 아래에 뽕너머라는 마을이 있었고, 이 마을 한 모퉁이에 약샘이 있었는데 그 샘너머에 마을이 있다 해서 샘너머라고 지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달구내 동쪽으로 큰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용샘이라 하며, 하늘로 용이 올라간 샘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전해지고 용천이라고도 한다.

달구내 동쪽에 있는 바위를 쌍바위라고 하며, 두 바위가 쌍으로 서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개는 상여가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갔고 부녀자들이 명절 때마다 치성을 드렸다 한다. 이곳에는 2기의 고인들과 서쪽으로 약 50m 떨어져 1기가 더 있어 3기의 고인들이 있으며, 모두 성혈(性穴)이 나타나 있다. 주변에서 간돌칼과 화살촉 등이 발견 된 바도 있다.

이 쌍암마을 오른쪽 산이 테피산 월기리 산성이며, 이 산성은 작은 토루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둘레는 약 200m 정도로 성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서벽에 회랑부가 남아있다. 산정리 장군봉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월기문화원(전 월기초등학교) 부근의 마을은 역사가 깊지 않고 근래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월기리 앞들이 옛날에는 수리 시설이 안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넓은 들이라도 이용 가치가 없어 사람이 거주할 조건이 안됐고, 오히려 가공 가까운 곳의 물 빠짐이 좋은 좁은 농토를 생활 터전으로 삼았다 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곳에는 오래된 묘가 없다.

마을의 흔적만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느라티 라고 하며, 이사리 구렁목에서 샘너머로 가는 중간에서 요즘에도 기와장이 발견되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세거리에서 석동까지 비 오는 날에는 기와집의 처마 밑을 따라 가면 비를 맞지 않았다고 하여 그 당시 많은 집들이 연이어 지어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곳에는 사철 물이 많이 나는 샘이 있고 그 샘물로 인해 농사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

많은 기와집들이 사가였는지, 사찰 건물이었는지 그리고 언제 없어졌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샘너머 입구에는 솟대배기 라는 곳이 있는데, 삼한시대부터 시작하여 근래까지 솟대가 있었다고 하며, 솟터는 솟대가 있는 신성한 구역이고 솟터가 신성하다는 것은 바로 솟대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마을로 올라가면 인소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의 기린봉에 말루절이라는 절이 있었다 하며,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이 절에는 속세를 떠난 수백 명의 중이 살면서 이들이 죽으면 인소골에서 화장을 하여 장례를 치렀다 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화장한 장소를 인소골이라고 했다.

세거리는 월천 북쪽으로 있는 마을이며, 마을에 세 갈래 길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거리에서 마산면 이사리 북리로 가는 모퉁이를 벌머치기라 한다.

월기문화원 뒷산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며, 월천 서쪽에 있는 마을을 면우지(소가 누워 줄고 있는 모습의 땅)라고 하는데 이곳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발전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월기문화원 서남쪽 건너편 들에 메기방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에는 물이 많고 메기가 많이 살던 곳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밖에 있는 들을 들아랫들이라고 한다.

기록에 보면 이 마을에 부영배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곳은 확실한 위치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월기 앞들은 현재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 농사짓기에 편리한 곳으로 사람들이 옮겨와 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월기리 삼기 마을과 이사리 일대에서는 돌도끼, 어망추, 석촉 등이 자주 발견되고, 삼기 마을 입구를 솟대배기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중요한 선사유적지로 추정되고 있다.

-가공리(加公里)



가공리 전경

언젠가는 큰 인물이 배출 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공리는 백제 때 마산현 소속이었으며, 신라시대 가림군에 속한 마산현이었다. 조선시대 한산현이었다가 조선 말 한산군 서상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가좌리, 은공리, 양지리 일부를 합하여 가좌와 은공의 이름을 따서 가공리라 하여 서천군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주로 온군절, 가재울 등으로 지칭되는데, 이는 은공과 가좌에서 비롯된 말이며, 옛날 은공에 절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가공 옥녀봉 서쪽 계곡에 있는 절터는 온공절이라고 불렀다 하며, 특별한 유물 유적은 발견되지 않고 다만 계곡 내에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서 없어졌다는 말만 전해진다. 현재 절터라고 하는 곳은 대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건물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하다.

가좌는 윗가좌와 아랫가좌로 나누어지는데, 마을 들녘이 병목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병목아지라 불렀으나 지금은 경지정리로 인해 변형된 지역이다.

또한 청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 청룡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그곳에는 큰 정자나무 두 그루가 있었으나 천해를 입어 없어졌다.

이 밖에도 산이 달처럼 생겼다 해서 달피 또는 달그매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영모리로 넘어가는 동쪽 고개는 옛날 성황당이 있었다 해서 성황당 고개라 한다.

옥녀봉이라고 부르는 산에는 일제시대 금광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광되었고 몇 년 전 다시 광산 일을 시도해 보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진입로 확보 등으로 인해 포기했다고 전한다.

이 마을은 물이 좋아 모시 표백지의 원조로 불릴 만큼 옛날부터 모시 표백을 해 오던 마을이다. 그러나 한산에 모시 표백소가 생기자 이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일했다. 지금도 표백집 후손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며, 모시 표백에 사용하던 유명한 샘이 있는데, 한 곳은 경지정리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 곳만 남아 있으나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 마을에서 오래도록 보존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영모리(永募里)

영모리는 명당혈이 있고 산수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로 3선 의원인 이공규 의원의 출신지이며, 문헌서원이 자리 잡고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다가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한산현이었고 조선 말 한산군 서하면에 소속됐던 곳이다.

고려 때의 성리학자 목은 이색의 영모암이 있음으로 영모암 또는 영모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송정리 일부를 합하여 영모리라 해서 서천군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영모암을 중심으로 북쪽에 목은 이색의 묘가 있는 가지고개와 서쪽에 부처를 닮은 부처바위가 있고, 동남쪽으로 산성너머가 있는데 건지산성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서 그렇게 불렀다 하며, 서북쪽으로 새로 생겼다 해서 붙여진 새뜸 또는 신기, 남쪽에 밤바위가 많았던 밤굴이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또한 이 마을 아랫녘 입구 쪽에는 한산팔경에 송정암송으로 나오는 송정산이 있다. 마을 위쪽 깊

숙한 산 밑에 명당으로 알려진 목은 영당, 목은 신도비가 있고 그 동편에 문헌서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문헌서원은 조선 1594년(선조 27)에 창건했으며, 도 지정문화재 125호로 이곳에는 한산 이씨의 시조 이윤경의 현손인 이자성의 아들 이곡과 이색, 이종학, 이자, 이개, 이종덕 등의 현인이 배향되어 있다. 이곳에 있는 장판각에는 가정과 목은 선생의 문집 판각이 보존되어 있으며, 도 무형문화재 7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88년 보수공사를 마쳐 새롭게 단장되었으나 지난 91년 5월 15일 밤에 총 975매 중 목판 180여 본과 고서 70~80권을 도난당한 후 일부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문헌서원은 인근 초, 중 고등학생들의 소풍지로도 알려져 있다.

마을에 효자 이종덕 효행비가 있으며, 영모리 산성, 영모암지가 있다.

마을에는 이울재 라는 고개가 있는데 서낭당 고개라고도 하며 옛날에 성황당이 있었다.

영모암 아래쪽 마을을 아래뜸이라 하고 밤굴 남쪽에 있는 지역을 승정이라고 하는데,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승정산이 명산으로 나오고 그 산 아래 자리 잡은 마을이며, 그로 인해 승정이라고 한다고 전해진다.

염밭이라는 지역의 서쪽으로 넓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넓다 해서 광암이라고 부르고 남배라고도 한다. 따라서 마을도 남배라고 하며, 한산지방 금성 나씨의 시조 한림공이 이곳으로 피난 와서 남은동 이라고 불렀고, 그 지명이 변해서 남배가 되었다고 한다.

영모리 산성은 건지산의 서남부에서 완만하게 뺏어 내린 능선을 따라 형성된 150m 산정을 중심으로 테피식 산성이 쌓여지고 능선의 서남 사면을 이용하여 후에 내쌓기를 한 산성으로 이중 산성이다. 지금은 2차 산성시 연결부분이 파괴되어 흔적만 남아 있고 성 내부에 여러 개의 민묘가 있으며 외편 등이 산재해 있다.

효자 이종덕 효행비는 1961년에 건립되었으며, 한산 이씨 소유로 되어 있다. 목은 이색 선생의 아들인 종덕은 소년시절에 진사가 되고 약관에 과거에 오른 분으로 태조 이성계와 친밀한 사이였으나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후 화를 당하였고,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충효에 뛰어나고 그 부인 또한 효열을 갖춘 분이라 한다.

승정사지는 승정산 산록에 있으며 이 사지는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지는 약 2백여 평으로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 사지 하단에는 웅달샘이 있어 1992년 서천군에서 정비했다. 사지 내에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기와편이 산재해 있으며, 자기편 역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승정사는 기록에 보면 조선 초에 건립되었다가 중기에 폐사된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모리 전경

- 광암리(光岩里)

기산에서 한산 쪽으로 가다 보면 고갯마루에 윤말정 효자비각이 서 있는데 이 마을이 광암리이다.

송정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에 넓게 자라 잡은 광암리는 돼지고개 전설로도 유명하다.

광암리는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었고 신라시대 마산현의 가림군 영현이었다가 고려 초 한산의 임천에 속했었다. 그 후 조선 태종 13년에 한산현 이었다가 조선 말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광현리, 쌍암리, 활동리, 표동리 각 일부를 합하여 광현과 쌍암의 이름을 따서 광암리라 하여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광암리에는 빛고개 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목은 이색의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의 묘가 있으며, 옛날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지형을 살펴본즉 빛이 잘 쪼이는 곳이라 광현이라 했다 하는데, 그 후 빛고개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무학대사가 목은 선생과 동행하여 산소 자리를 잡다가 아무리 찾아도 명당이 없어 베 짜는 여인에게 마을 이름을 물으니 빛고개라 하여 쇠를 놓아 명당을 찾았다는 설도 전해진다.

마을에 쌍암 바위가 있기 때문에 쌍암이라 부르게 된 이 마을의 쌍바위는 옛날 한산에서 성을 쌓을 때 마을에 힘이 장사인 한 아낙이 남편이 병중이라서 대신 부역에 나가 성을 쌓게 되었는데, 그 아낙은 한나라의 항우 보다 힘이 세어서 바위를 양팔에 끼고 가는 도중 성이 완성되었다는 함성을 듣고 이곳에 돌을 그냥 놓고 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쌍암 고인들은 그 명칭 때문에 도로 좌우측에 있었던 바위 2기만을 생각하나 실제로는 남쪽의 구릉지대에 4기의 고인들이 더 있으며, 또한 주변에서 돌화살촉이 발견됐다고도 한다.

빛고개 동남쪽에 자리 잡은 골짜기를 돼지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소로가 있었으며 그 골짜기에 주막이 있었다 한다. 주막은 항상 흥청거렸으나 그 근처에는 멧돼지가 많아서 가끔 사람들이 다치곤 했다. 골짜기에 주막과 멧돼지가 많아서 돼지소리가 들리는 골짜기라 해서 돼지골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등곡 또는 등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연유는 마을 뒷산에 괘등형(掛燈形)의 명당이 있어 그렇게 부른다 하며, 그와 연결된 지름너머고개라는 지역이 있다.

또한 물러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물이 넘어 오는 고개라는 뜻으로 그 고개를 넘어 물이 거꾸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금강호 물이 이곳까지 거슬러 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조상들의 예언이 맞았다며 마을 사람들이 신통해 하고 있다.

한산과 화양, 서천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의 장승이 서 있었다 해서 장승백이라고 한다.

효자 윤말정 비는 당초 1655년 세워졌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 전 비각과 함께 다시 세워졌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더니 성장해서는 더욱 지극히 부모를 봉양하고 부친이 병환이 나자 붕어가 약이라는 말을 듣고 방죽가에서 붕어를 잡으려 했으나 장마 뒤라서 잡을 수 없게 되자 울면서 기도하니 4마리의 붕어가 저절로 튀어나와 잡아서 드리니 병환이 곧 나았으며, 어머니 병환에 손가락을 세 번에 걸쳐 잘랐으며, 노루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산에 올라가 제를 올리니 노루가 나타나 이를 잡아 드렸다고 한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시묘살이를 함에 있어 비나 눈이

오면 우장을 갖추어 봉분을 가리고 날씨가 개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또한 효자 김정구, 효부 남평 문씨의 정려비각이 있다. 이 비각은 광암리 쌍암에 있으며, 1888년에 세워졌고 김해 김씨 소유이다. 김원오의 처 남평 문씨는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로 수십년 간 시어머니를 받들고 자식들에게 바른 의리와 어진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 아들 정구에게 정려비를 받도록 했다.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돼지고개의 전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산면 광암리와 한산면 지현리의 면계를 이루고 있는 이 고개는 오늘날에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나 옛날에는 험하고 도적들이 들끓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 무렵 이 고개에 한 청상과부가 집을 짓고 살게 되었으며, 그 위쪽에 도사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무렵 핑장한 흉년이 들어 마을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느 집에 가나 곡식을 넉넉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도적들이 더욱 극성을 부려 이 고개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산에 있는 도사와 과부의 집은 손을 대지 않았다.

과부는 멧돼지 떼가 우글거려도 두려움을 모르고 유유히 생활하고 있었으며, 도사는 도사대로 도적들은 아랑곳없다는 듯 자기 일에만 열중이었다.

그러던 중 도적들은 이 고장에서는 더 이상 훔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집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도적이 없어진 그 고개는 고요를 되찾고 도사와 과부만 평화스럽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 집에서 기르던 돼지가 우리를 뛰쳐나와 산길로 올라갔다. 과부가 뒤쫓아 가니 돼지는 자꾸만 위로 올라가더니 도사네 집으로 들어갔다. 홀아비 혼자 사는 집안으로 들어 갈 수도 없고 해서 밖에서 떨며 기다렸으나 몇 시간이 돼도 돼지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도사네 집에 간 돼지는 다음날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과부는 지금껏 정성을 들여 키운 돼지가 아까워서 도사네 집을 빙빙 돌았으나 돼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흘이 되는 날 돼지가 돌아왔다. 그녀는 패썹한 돼지를 몹시 꾸짖었지만 돼지가 알까닭이 없었다. 한 일주일 잠잠하던 돼지는 다시 7일 만에 우리를 뛰쳐나와 산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돼지가 도사네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미리 뛰어가 도사네 집 앞에서 막아섰다. 그러나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돼지는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녀는 돼지가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비켜서다가 엉덩방아를 찧고 허리를 다쳤다. 이를 본 도사는 과부의 다친 허리를 정성껏 간호하다가 이들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이 고개의 이름을 처음에는 도적이 많다 해서 도적골이라 하다가 도사와 과부가 돼지로 인해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돼지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황사리(黃寺里)

황사리는 누른절과 갓점이라는 자연 마을로 이루어졌는데, 누른절은 화산리와 인접해 있으며, 기산면 소재지에서 광암리 쪽으로 한 참을 가다보면 등굴 마을에 가기 전 서향으로 형성된 마을이 갓점이다.

누른절은 기산초등학교 옆 동편으로 소로를 따라 가면 절터가 있는데, 마을 이름도 절 이름에서 비롯되어 누른절, 황사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절터가 위치한 지역은 표고 140m의 능선이 남향으로 뻗어 내린 곳으로 앞에 있는 송정산과 평행을 이루어 계곡이 형성된 서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면적은 3백여평에 이른다. 주변에서는 조선시대 외편이 발견되며, 청화분청사기편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쌓은 것으로 보이는 석축렬이 일부 남아있다. 그 외 절터라고 할 수 있는 유적 유물은 없으나 빈대로 인해 절이 망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황사리는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던 곳이며, 신라시대 가림군의 마산현이었고 고려 때는 임천의 한산현이었다. 조선 태종 13년 한산군이었다가 조선 말 한산군 서하면의 지역으로 고려 때 누른절이 있었으므로 누른절 또는 황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황사리, 관동리를 합쳐서 황사리라 하여 기산면에 편입되었다.

갯점을 관동(冠洞)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시대 갯을 만드는 사람이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누른절에는 오얏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옛날 기와를 굽던 기와공장이 있었다 한다.

또한 누른절 동편에 있는 샘을 유왕샘이라 하는데, 이 지방 여인들이 용왕제를 지내던 샘이라 용왕샘이라 부르다가 변하여 유왕샘이 됐다고 한다.

마을에는 열녀 유한승 부인 분성 김씨 지려문이 있다. 갯점에 있는 이 지려문은 1869년에 건립되었으며, 분성 김씨 문중 소유이다.

유한성의 처 분성 김씨는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성을 갖추었는데, 유씨 댁에 시집와서 시부모를 섬길 때 집이 가난하여 보잘 것 없는 음식으로 공양하더라도 몸소 익혀서 먼저 맛을 본 후에 드렸으며, 남편이 등창에 걸려 여러 해 앓자 정성을 다해 간호하며 종기를 빨아내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다. 또한 사경을 헤맬 때 넓적다리 살을 떼어내 국을 끓여 드려 4일간 목숨을 연장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황사리 전경